| 불자 세상보기 |

가정 화목이 청소년 범죄 막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범죄학 박사

우리주변 폭력적 청소년 많아
가장 큰 원인은 가정환경의 문제
소년범죄는 '사회 부적응의 증상'

가정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원흉
올바른 부모 가진 문제아는 없어

아이들과의 소통 교육 훈련 절실
국가가 친권대신할 보호망 필요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17세의 여고생으로 밝혀져 우리를 다시 한 번 경악케 하였다. 청소년들의 강력사건은 이 뿐만 아니다. 몇 년 전 겨울 어느 빌라의 계단을 서성이던 16세의 소년은 때 마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비운 집으로 숨어들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강간하고 감금하여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임신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와 공모하여 시신을 유기한 범인도 18세의 남자아이였다. 그 만큼 우리주변에는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환경의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며,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사회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다면 한 사람의 아이도 일탈과 탈선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흔히 소년범죄를 '사회 부적응의 증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사회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사회화기관 중에서도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물론 가정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

소년범죄는 곧 건전하지,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와 우리사회의 가정이 어떤 문제나 역기능을 겪고 이기에 이처럼 심각한 소년범죄와 같은 문제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의 해체에서 그 이유도 들고 있다. 가뜩이나 현대가정이 집(home)은 있으나 가정(family)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적 불황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혼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 결손가정은 물론이고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등 심리적, 감정적 결손가정의 증대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정 해체가 청소년 범죄의 원흉으로 비난 받는 것일까. 우리의 소년사법제도 자체가 바로 '국친사상', 즉 보호자가 청소년을 정상적으로 보호 육성,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친권자를 대신해 보호 한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그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부모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그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많은 소년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모든 문제 아이들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가정이 있고 문제 부모가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부모를 가진 잘못된 문제아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흔히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나쁜 것을 보인다면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연구결과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제 자식도 때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듯이 말이다.

소년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좋은 부모되기, 즉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기능, 사명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 등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가정의 존재 자체나 기본적인 기능조차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소년사법처럼 국가가 친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호망과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特別기고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하는 이유는?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금년에는 윤달이 5월에 들었는데 특히 안거 중에 있어서 각 사찰마다 생전예수재 준비와, 안거 기도로 도량에 정진하는 기도 소리가 신명나게 들린다. 예수재의 기원은 불교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 심성 약한 인간의 본성은 자연환경 어디에라도 매달리고 싶고, 작은 불상사라도 있으면 천지신명이나 산천초목이 노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으며, 그 사이에 전생에 죄를 짓고 태어나 업보로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전예수재의 역사는 경전 〈지장보살본원경〉을 비롯해 〈불설수생경〉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 〈예수천왕통의〉 등 여러 경전 속에서 그 교리적 근거와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지장보살본원경〉권 하서 특히 주목할 단어는 자수(自修:스스로 공덕을 닦음)와 역수(逆修), 예수(豫修)라는 용어다.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이익존망품'에는 "생전에 선인(善因)을 닦지 않고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사후에 그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대소 공덕을 베풀면, 그 공덕은 망자뿐 아니라 재를 베푼자가 오히려 더 수승 한 공덕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현재 말세의 중생들은 자수해 많은 공덕을 닦아야 한다. 사후에 권속이 천도재를 베풀어 주면 큰 공덕이 되지만 어찌 꼭 지내 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생전에 미리 닦는 예수재(자수)는 모든 공덕을 본인이 받는다고 했다.

그럼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언제부터 생전예수재의 형태가 나타났을까? 처음 나타난 기록은 조선 중종 13년(1518)에 강원도 원주 사람인 진사 김위(金渭)의 상소문에 등장하는 '소번재(燒幡齋)'이다. 내용은 근일 이래로 두 세 승니(僧尼)가 머리를 땋아 늘이고 속인 복장으로 몰래 내지(內旨:임금의 비밀명령)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해 쌀과 재를 많이 가져다 재승(齋僧)에게 공양하고, 당개(幢蓋 장엄 번)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세워놓고, 또 시왕(十王)의 번이나, 화상을 설치해 각각 세워 두며, 한곳에 종이 1백 여 속(束:전생에 빚을 갚는 종이)를 쌓아두었다가 법회를 설시(設施)하는 저녁에 태워버렸다는 상소내용으로 보아 이것이 생전예수재의 형태로 판단된다. 예수재란 특히 종명에 가까운 노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은 복중 아기 때부터 해주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예수재란 글자 그대로 전생에 지은바 업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생에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씻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전예수재는 참외수박 심기 좋은 밭에 파종 전 잡초를 미리 뽑아 버리는 이치와 같다. 잡초가 많으면 어린 씨앗들이 잡초의 억센 힘에 싹 자체가 발아 과정서 녹아 버리거나 다행히 발아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우리 삶의 많은 불행의 고통은 모두 업연의 소치다. 전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사 스님이 말하시길 전생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고 내생에 내가 받을 일을 알려면 금생을 살면서 선과 악을 인식하라 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뜻이다. 선업은 잘 크지 않지만 악업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수없이 넝쿨을 뻗으며 뿌리도 깊어진다. 경전에 '아생초곡군지부(兒生初哭君知否: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통곡하는 의미를 그대는 아는가?' '일낙인간만종수(一落人間萬種愁)이라: 한번 인간세상 태어났다하면 근심이 만 가지라네.' 라 했다. 바로 이와 같이 고통의 근원을 소멸하고자 하는 것이 생전예수재이다.

社說

Temple에 외국인 오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방한한 외국인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템플스테이는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정작 외국인 참가자는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템플스테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요즈음 늘고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2만 4~5000명 수준을 맴돌다 2015년 3만 2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또한 봄 시즌에만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이른바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치 2.0이다. 문제는 재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5년 불교문화사업단 자체 조사에서 '재참가 의사'를 밝힌 이들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템플스테이의 발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외국어 안내와 낯선 숙박환경, 편의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사찰까지 편하게 올 수 있는 셔틀 운영등 교통편을 개선하고 온라인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는 등의 맞춤형 마케팅이 있어야 한다. 또 낯선 좌식문화도 일부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템플스테이의 경쟁 상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펜션 등 다른 관광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싶어 하는데 달려있다. 도입 16년 차를 맞이한 템플스테이는 이제 발전단계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시민 안전은 환경영향평가로부터

현대자동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환경영향평가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각종 환경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저감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동안 봉은사대책위가 수개월에 걸쳐 현대차 측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또 롯데그룹이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미뤄볼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 GBC 건립사업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월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됐다. 일각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현대차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결국 재심의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현대차 GBC 건립사업과 같은 기간 진행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도 이 같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차와는 다른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두 사업은 유사성과 인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끝난 뒤 초래할 환경문제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 한 사업이 다른 사업 결과에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시의 수익성, 관광성 등 여러 가치 중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시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부디 환경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